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읽기 시즌1 - 1강 강의록 플라톤주의의 핵심과 플라톤적 사유를 넘어서는 방법

0. 들뢰즈 철학의 문제의식과 사유의 구도

0.1. 들뢰즈의 철학하기 방식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는 근본적으로 사유하기, 다르게 사유하기의 전범을, 즉 철학적 지식의 이해와 습득을 넘어 주체적으로 철학하기의 모범을 보여준다. 역사적 사회적 현실 문제를 출발점으로 해서, 기존의 쟁점과 주장들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비판을 통해서 다음 논의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을 하나씩 마련하고, 점차 사유의 근본적인 차원인 굽직한 인식론적 문제와 존재론적 논점들로 이행해나간다. 그리고 기존 사유의 문제점과 한계들을 바탕으로 역사와 현실을 떠받치고 있는 사유의 박제화된 토대를 해체하고, 현실적 유용성도 논리적 근거로도 포획할 수 없는 사유의 심연을 직시한다. 그러한 사유의 장벽과 현기증나는 심연 속에서 새로운 사유의 방식과 근거를 정립하고, 다시 현실의 실천적 문제와 대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의 과정에서 들뢰즈는 타자의 사유를 쉽게 일반적인 통념으로 단순화하거나 자신의 사유방식으로 환원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사유의 내부성과 동일성에 안주하며 끊임없이 거대한 사유의 건축을 축조해나가지도 않는다. 들뢰즈는 삶과 세계가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물음들을 회피하지 않고, 삶과 사회의 세계가 제기하는 문제를 풀고 그러한 과정에서 솟아나는 수많은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부단히 바깥의 사유들과 우발적으로 접촉하고 가로지르면서 새로운 사유방식을 창조해나가는 철학적 사유의 드라마를 펼친다. 이러한 이성적 사유의 드라마에는 더 나은 인간다운 삶을 꿈꾸는 문제적 상황에서, 삶의 근본적 질문과 그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이 들어 있는 씨앗들을 정신과 마음, 그것이 터하는 현실에 뿌리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버려진 씨앗이나 썩은 씨앗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시키는 철학사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들뢰즈의 사유는 자신의 사유방식과 다른 다양한 이질적인 사유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논쟁하면서 대화 상대의 철학적 사유 안에서 싹트기를 기다리는 낯선 사유의 씨앗들을 발견하여 움트게 하고 잎과 가지를 뻗어 꽃과 열매를 맺게 하면서, 동시에 들뢰즈 자신 안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잠든 사유들을 일깨워 거기에서 더욱더 새롭고 창조적인 사유를 발효시켜나간다. 물론 그러한 새로운 사유의 이미지와 모습이 우리의 익숙한 사유를 위협하고 타자화하는 괴물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삶과 세계의 더욱 참된 모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고 좀더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0.2. 들뢰즈의 반플라톤주의와 플라톤적 사유 벗어나기

익히 알고 있듯이 들뢰즈의 사유는 플라톤주의에 맞선 반플라톤주의적 투쟁이자 사건과 생성의 사유이다. 어째서 플라톤 철학을 극복해야 하고, 플라톤 사유의 무엇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구분하기와 평가하기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합리적 사고의 원형이 대상의 같음과 다름, 참과 거짓, 허구와 실재를 구별하기 위한 분석하기, 구분하기, 분류하기(나누기), 결합하기(여기), 절합하기(분할하기) 등과 같은 분석과 종합이다. 사물의 활동과 기능이 사물의 본질이고 실재의 본성이다. 이는 모두 부분적인 앎과 관점을 넘어서 부분들 사이의 관계, 부분과 전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안목과 전체에 대한 통찰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때 철학적 차원, 즉 인식론과 존재론, 가치론이 얹혀든다. 인식론은 참이나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를 다루는 영역이고, 존재론은 있음과 없음, 존재와 무, 일자와 다자 등 존재와 비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영역이다. 또한 가치론 내지 윤리학은 가치와 의미, 자유(주인)와 예속(노예), 선택과 책임을 논하는 영역이다.

그러면 그러한 분할=나누기라는 행위가 과연 순수한지를 정치적으로 문제삼은 철학자가 미셸 푸코이다. 대상을 등질화하여 나누고 분류하는 지식과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포함하는 권력은 정치 현실에서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앎의 의지와 권력에의 의지의 상호 공모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앎과 인식을 지향하는 일과 타인을 부리고 지배하려는 권력 의지의 행사가 무엇 또는 누구를 위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객관적 인식을 위한 앎의 노력은 정당화될 수 있지만,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한 권력 행사를 위한 지식은 거짓과 기만으로 귀결되기에 정당화할 수 없게 된다.

-독사 : 생성과 관련해 성립하는 경험적 지식. 감각에 근거한 규정과 앎.

-에피스테메 : 합리적 지식. 이성에 근거한 규정과 앎.

0.3. 플라톤의 문제의식과 철학적 구도

(1) 플라톤의 문제의식

플라톤의 철학적 문제의식은 ‘선별’이다. 진짜와 가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선별하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플라톤의 결론은 이데아를 통해 진짜를 선별하여 더 좋고 순수한 것을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데아는 무엇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의 물음에 대한 플라톤의 최종적인 대답인 셈이다. 이렇게 플라톤이 이데아를 주장하는 것은 현상의 수많은 존재자들 중에서 진짜를 선별해내기 위해서이다. 진짜/참됨의 변별은 이데아의 분류(participation, 나누어가짐) 정도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종차(種差)를 통해 유(類)를 분할해나가는 방식, 즉 동일성과 일반성의 지평에서의 차이를 통해서 어떤 사물의 특성과 다른 사물과의 관계적 차이를 인식하는 방법과는 사뭇 다르다.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 얼마나 같고 다른지를 분별하는 플라톤의 방식은 어떤 사물의 이데아의 분류 정도에 따라 존재론적 차원에서 식별되고 가치론적 차원에서 평가된다는 것이다.

(2) 플라톤의 철학적 구도와 개념들

철수(인간1)-영희(인간2)-길동(인간3) : 현실의 다른 개별자들인데 동일한 이름으로 불림 + 현실은 이데아의 그림자들/모방물들(감각적 현상들, the sensible) + 그림은 현상을 모방한 것들(흉내내기-테크네)

개별자들에게 공통된 무엇 : 인간의 이데아(형상/에이도스 eidos: 본래적 존재들-수, 논리, 보편자들 등; 명제론을 뒷받침하는 존재론). 이성으로밖에 파악할 수 없는 가지적(可知的)인 것들(the intelligible). 이데아는 신들이 만든 진리의 차원이다.

1. 플라톤과 그리스인들 19쪽

(1) 그리스 사회의 특징

내재성의 사회질서와 장이 그리스 사회의 특징이다. 민주정 시기뿐만 아니라 참주정 시기에도 그리스 사회는 서로 경쟁하는 자유인들 또는 시민들로서의 친구들 곧 경쟁자들의 사회로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었다. 권위자의 명령과 금지가 지배하는 신정질서와 같은 초월성의 사회질서와는 매우 다른 사회인 것이다.

도시국가의 특성 세 가지. ㉠범우주적이고 범도시국가적인 초월적 기준을 거부하는 토착성. ㉡펠리아(우정적인 사랑), ㉢견해(독사)가 아테네민주주의 세 가지 특징이다. 이는 서양 사회에서 철학의 탄생과 발전의 조건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철학자의 특징으로 이어진다. ㉣우주에 초월적인 질서가 아닌 내재적인 질서를 제시한다[토착성]. ㉤ 동방식의 현자가 아닌 지혜의 친구로 나타나며[사랑] ㉥사람들의 의견을 “교정하는” 일을 자신의 과업으로 자처한다[견해].

한 마디로 그리스 사회는 주장자와 경쟁자가 이성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철학이 그리스적인 기원을 갖는다면 그것은 그리스의 도시국가가, 제국 또는 국가와 달리, 서로 경쟁하는 자유인들이 이루는 공동체의 규칙, 즉 ‘친구들’이 이루는 사회의 규칙인 아곤(agon: 경쟁의 규칙)을 발명해냈기 때문이다.”(들뢰즈.가타리, 『철학이란 무엇인가』)

①정당한 주장자-경쟁자 : 정당한 주장의 근거 자체는 이데아(선별의 철학)에 의해 보장됨

②나름대로의 생각 :

㉦ 에피스테메(episteme, 지식/인식) : 근거 있는 생각. 원본에 대한 견해-올바른 견해 형성

㉧ 독사(doxa, 의견/견해/편견/억견) : 근거 없는 생각. 환영으로서의 견해-거짓된 견해. 예)

☞ 플라톤의 구분 의도는 환영에 대한 원본의 우위 관점 확립. 환영은 사본의 사본, 원본의 왜곡, 원본의 타락이기 때문이다.

***푸코의 에피스테메는 인식틀/인식가능성의 조건 :**

우리의 사고를 가능하게 해주는 무의식적 토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에피스테메인데, 한 시대의 선형적인 인식론적인 틀(역사적 아프리오리)로서 사물을 특정한 방식으로 언어화하고 인식하게 해주는 무의식적인 삶의 질서이자 사물이 질서화되는 방식이다. 사물에 질서를 부여하는 인식체계/인식틀, 현상을 질서짓는 사유방식인 것이다. 요컨대, 우리 의식에는 우리의 삶

에 구조적 통일성을 부여하는 관념체계가 작동하고 있고 그 한계 너머는 사유 불가능성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푸코의 에피스테메는 역사적 시기마다 사물을 분절하는 담론의 규칙으로 인간의 사고방식을 틀지우는 심층적인 인식틀이자 이성의 은밀한 작동방식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유사성의 에피스테메 → 고전주의 시대의 표상의 에피스테메 → 근대의 실체(생명, 노동, 언어)의 에피스테메]

(2) 그리스적 사유의 탁월성과 장점 :

그리스인/철학자들이 철학하는/사유하는 방식. 자신의 주장에 합당한 근거를 대서 논증하는 합리적 사유는 함께 진리를 사유하고 탐구하며 대화하는 타자를 전제하는 사유이다. 일방적으로 말하거나 모호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이성을 사용하여 서로 논의를 주고받는 대화적 이성을 발휘하는 만남이다. 존재론적 토대를 탐구하면서 논의하는 심층적인 논의이다. 계시를 내리듯이 일방적으로 말하기, 옛날 이야기하듯이 느슨하게 말하기, 시인처럼 모호하게 말하기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논의한다는 것이다.

플라톤 철학의 핵심은 탁월함과 탁월하지 않음을 가르는 선별의 논리에 있다. 그러한 선별은 결국 나눔의 방식에 의거한다. 플라톤은 아무것이나 주장하는 소피스트들을 비판하면서 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서 주장들이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해줄 기준을 창조할 필요성에 의해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이데아 심급들을 제시한 것이다. 황제의 초월성이나 신화적인 초월성과는 완전히 다른 초월성을, 내재성의 장 속에서 작동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선별을 위한] 초월성을 세워야만 했다. 내재성의 장 속에서 새로운 유형의 초월성을 세웠다는 것, 초월성에 그럴 듯한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다는 사실이 플라톤주의가 우리에게 남긴 독이 든 선물이다.

신화-근거(이데아) : 기준을 먼저 세우고 그것과의 거리, 즉 기준과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선별하는 것이 플라톤주의의 선별의 원리이다. 문제는 엄정한 선별이나 무분별한 열정이나.

[원본/원형/형상(실재/ 그것 자체/아버지) ⇒(분유/유사성) 사본(현실의 사물/실물/딸) ⇒(비유사성/상사성) 환영(시물라크르/사물 이미지/구혼자)]

-플라톤이 바라본 세계 : 동일자 재현의 세계상. 감각적인 것-가지적인 것

⇔ 현대적 사유 : 시물라크르의 시대 - 본질의 거부 + 차이의 반복

㉠이데아계 : 본질·형상·실재(동일자)/원본의 세계/태양의 세계-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지적인 것(the intelligible/가지계).

이데아-현실에 없는 영원불변의 참된 존재(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한 것).

㉡현상계 : 현상·외양·외관/실재의 형상을 모방하는 그림자들(eidolon)/모방물·재현의 세계/지하 동굴의 세계-오감으로 파악되는 감각적인 것(the sensible/감각계).

㉢이데아의 복사물(eikones, copy)/원본과의 가까운 수직적 유사성

㉣시물라크르(phantasmata, simulacre)/원본과 다른 수평적 동일성과 차이(상사성)

*예술작품은 표피적 흉내내기로서의 시물라크르. 그림은 진리의 모방이 아니라 화가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모방한 모방의 모방, 열등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열등한 자식이다.

*분유(participation) : 현상계의 사물들이 이데아의 성질을 나누어 갖는 것.

*시물라크르(환영) : 원본(모사/모방할 실재) 없는 이미지. 실재/현실/실물의 대체물/인공물/가장물. 실재/현실/실물보다 더 진짜 같은 이미지.

; 이데아로부터의 거리가 유동적임에 따라 선별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시물라크르 속에 내면화된 발산하는 두 계열 중 그 어느 것도 원본도 복사본도 될 수 없다. 『차이와 반복』

-플라톤에 대항하는 철학으로서의 탈플라톤주의 철학

플라톤주의에 맞서는 모든 대항은 당연히 플라톤적 초월성이 배제된 순수 내재성을 복원하는 일이었다. 다만 이 대항이 선별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 플라톤과 반대로 경쟁자들에 대한 모든 선별 계획을 포기하는 대항인지, 아니면 니체가 믿었던 새로운 선별방법(영원회귀)을 세우는 대항인지는 각기 다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스토아학과 철학자들로 시작해서 스피노자와 니체를 아우르는 순수 내재성의 철학만이 플라톤주의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2. 플라톤주의를 뒤집다(환영들) 23쪽

(1) 플라톤주의 전복 방법

니체처럼 본질의 세계와 외양의 세계의 소멸을 통해 플라톤주의를 뒤집는 미래의 철학의 과업을 달성하는 방법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플라톤주의를 뒤집기 위해서는 플라톤적 사유체계의 핵심인 이데아론의 동기를 문제삼아야, 곧 뒤집어야 한다. 그런데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동기는 이데아에 의거해 ‘선별하기’이다. 이데아 이론은 차이를 드러내는 것, 즉 “사물” 자체(본질)와 그의 이미지들(현상)을, 일차적이고 본래적인 것(이데아)과 그 사본(현실의 사물)을, 모델(모상)과 그의 시물라크르(환영)를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플라톤의 계획은 나눔/분할(division)의 방법을 통해 구체화된다. 플라톤의 나눔의 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한 것처럼 매개념이 결여된 삼단논법이나 하나의 유를 종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플라톤적 나눔의 목적은 계보를 선별하는 것, 즉 주장자들을, 순수와 비순수를, 진실됨과 비진실됨을 명확히 구분한 것에 있다. 플라톤주의가 철학의 오디세이아인 까닭은 플라톤적 변증법은 모순이나 대립의 변증법이 아니라 경쟁의 변증법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계보에대한 선별의 깊이에서, 즉 주장들을 분류하고 거짓된 주장자로부터 주장자를 구분해내는 선별의 깊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플라톤적 선별의 방법>

①신화 통해 근거 세우기 : 신이 만든 이데아(윤회 신화-환생 이전에 이데아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 통해 근거-모델의 건설.

② 선별의 근거 제시하기 :

분유(나눔.공유/참여) ⇒ 분유의 관계 :

㉠ 분유 불가자 : 이데아 자체, 일차적인 것 속에서 소유자/근거-아버지/정의

㉡ 분유되는 자 : 어떤 질을 소유한, 이차적인 것/주장의 대상-딸/정의의 질을 분유받음

㉢ 분유하는 자 : 원본의 사본을 주장하는, 이차적인 것에서 소유자/주장자-구혼자/정의(사본)를 주장하는 정의로운 자

『소피스테스』의 마지막 부분에서 플라톤은 시물라크르(환영)란 단순히 거짓된 사본(위조물)이 아니라 외려 사본과 모델의 개념 자체를 의문시한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플라톤 자신이 플라톤주의를 뒤집을 수 있는 방향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 아닐까.

-나눔/분할의 동기 :

플라톤의 나눔의 동기는 사물 자체와 그 이미지를, 본래적인 것과 그 사본을, 모델과 그 환영을 구분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올바른 사본과 그릇된 사본을 구분하면서, 또는 근거 있는 사본과 근거 없이 다르기만 하는 시물라크르(환영)를 구분하면서 주장자들을 선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곧 시물라크르(환영)에 대한 사본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나눔/분할의 방법 :

플라톤1	원본	사본 : 유사성, 비슷함/근거 있음 -도상적 사실들/올바른 사본들	원본에 따라 서열짓는 세계 -위계적 관계망의 세계
플라톤2	모델	시물라크르(환영) : 상이성, 다름/무근거 -환상적 환영들/잘못된 사본들	원본과 상관없이 성립되는 세계 -수평적 관계망의 세계

⇒사물 그 자체-이미지의 구분 : 원본(본래적인 것)-사본(유사성의 보증; 근거있음)/

모델-시물라크르(상이함에서 성립된 퇴폐와 일탈; 위조물/비존재)

*우상-이미지들을 도상적 사본들과 환상적 환영들로 나눔.

이데아의 지식 : 참된 앎/이성적 추론 내지 직관(기억/회상)

사본/사물의 지식 : 인식, 올바른 견해/재현.

시물라크르의 지식 : 술책과 아이러니, 잘못된 견해(오인, 오류)/환상, 환각

① 도상적 사본들 : 내재된 유사성. 정도상의 차이를 지님. 사물과 또 다른 하나의 사물 사이의 유사성이 아니라 사물과 이데아 사이의 유사성. 사본은 이데아를 보여주는 사본이자 이데아의 사본이다. 이처럼 근거 있는 주장은 오로지 내적이고 관념적인 유사성에 의해서만 정의된다.

② 환상적 환영들(시물라크르들) : 모델과 유사성이 없는/배제된 이미지, 거짓된 유사성. 사본의 사본, 무한히 격하된 도상, 무한히 느슨해진 유사성. 내화된 다름과 상이성으로서 본성상의 차이를 지님. ㉠내적인 상이성 : 신과 다름을 본질로 삼는 것은 사탄/악마. 심미적 실존을 위해 도덕적 실존의 상실? ㉡관찰자가 다스릴 수 없는/재현할 수 없는 작업. 깊이, 거리를 함축하는 것(유사성은 재현으로 방어하는 방식) ㉢옳고 그름이 없는 것.

☞ 시물라크르(환영) : 차이의 긍정/ 이데아도 차이 표시의 수단이었는데, 차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거짓 주장자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가. 참과 거짓은 무엇인가. 시물라크르의 본질, 정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데아의 모방 방식이 아니라 초월적 선별방식의 고착과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 들뢰즈의 플라톤 전복 방법 : 플라톤1를 통해 플라톤2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2를 통해 플라톤1를 재해석하는 것이다. 자가당착의 지점까지 끝까지 밀어붙이면 새로운 원리에 도달하게 된다. 그 지점에서 겉으로 주장된 것을 스스로 부정하고 자기 주장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단서나 새로운 관점과 원리가 시작된다.

(2) 현대예술에서의 시물라크르의 사례 :

<예술작품 모델>

① 부분들 관점 → 하나의 참모습 찾기로 수렴 → 질서 창조

② 따로따로 대응 관점 → 이질적인 계열들로 발산 → 합치면 혼돈/주름복합체(=[현실적 계열은 혼돈의 펼침상태 + 잠재적 계열은 혼돈의 접힘상태])

: 혼돈 = 차이들의 접합 구조화 방식

예) 제임스 조이스, 루셀, 로브그리에, 클로소프스키, 콰브리치 등

-『프루스트와 그 기호들』

유기적 연속적 총체가 아닌 중단과 불연속성. 조각들과 파편들을 생산하는 기계.

① 부분적인 물질적 기계 : 충동의 세계. 자아의 단절. 밀폐된 향아리, 거리감, 분리된 성.

② 공명, 울림의 기계 : 에로스의 공간.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비의지적 기억.

③ 강요된 움직임의 기계 : 타나토스의 공간. 이질적인 것들을 공통적으로 연결하는 은유, 욕망. 존재의 변질, 물러섬, 죽음.

(3) 세계를 읽는 2가지 방법 : 이데아 독법

① 동일성 중심의 사유방식-플라톤의 입장 : “오로지 서로 유사한 것만이 차이를 낳는다.” 동일성의 선차적인 것이 그 효과, 부수적 산물로서 차이를 낳는다는 사고방식이다. 여기서 선별과 소통의 기준은 원본/본래적인 것/이데아이다. 이 입장은 세계 자체를 유사성과 동일성에 따른 재현들의 세계, 사본들의 세계로 제시한다. 커다란 외적 유사성과 작은 내적 차이.

② 차이 중심의 사유방식-들뢰즈의 입장 : “오로지 차이들만이 서로 유사하다.” 차이들의 선차적인 것으로부터 부수적 산물로서 유사성이 나온다. 선별의 기준은 차이 자체이다. 측정과 상호 소통의 단위도 차이 자체이다. 이 입장에서는 세계 자체를 환영적인 것/시물라크르들로 제기한다. 시물라크르를 구성하는 같지 않음이 그 자체로서 판단된다는 것, 어떤 동일성도 예단하지 않는 이유들과 기준들을 따라서 같지 않음이 작거나 크다. 작든 크든 차이가 체계의 핵심을 차지한다.

이질적인 요소들과 계열들을 상호 소통 속에 넣음으로써 구성되는 체계들은 극히 일상적이다. 예) 기호-신호의 체계 : 신호란 잠재력이 갖는 차이들이 그 속에서 나누어지는 구조, 이질적인 것들 간의 상호 소통을 보장하는 구조를 말하고, 기호란 소통 중인 두 계열 사이에서 섬광처럼 번쩍이는 것(차이의 한 순간)을 말한다.

-물리적인 체계 : 물리적인 현상의 이유는 구성적인 불균형과 차이 속에서 찾는다. 이 경우 물리적인 모든 체계는 신호들에 그리고 모든 질은 기호들에 해당한다. 물리적 현상의 이질적인 계열들이 외적으로 머물며 현상의 재생산 조건 역시 현상에 외적으로 머문다.

-시물라크르 : 이질적인 계열들이 실재적으로 체계 속에 내화되어 차이 자체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 계열들은 그들 자체가 체계 속에 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재적이고 발산적이다. 여기에서의 발산이 수렴의 반대가 되지 않는 까닭은 모든 계열을 “접혀진” 상태로 취하는 그런 내적인 혼돈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크 시대의 주름 이론 : 차이와 다양성이 잠재성으로 존재한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
차이의 반복 감행 = 영원회귀(차이 속에서 밝혀지는 동일성)

잠재성-수렴 :

현실성-발산 :

☞ 들뢰즈의 철학과 방법은 차이의 철학, 시뮬라크르의 철학이다. 이때 본질적인 것은 그 모습 그대로인 한에서의 차이를 긍정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혼돈을 긍정하는 것이다. 시뮬라크르의 세계가 사본들의 세계, 재현의 세계로 환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 혼돈의 긍정 때문이다.

(4) 재현의 역사에서 재현의 고유한 한계를 넘어서려고 했던 무한한 재현의 두 순간

① 라이프니츠의 길 : 무한소를 통한 무한한 재현 추구 → 발산의 배제로 실패함

; 모든 가능성이 잠재성으로 바탕의 영역에(어둠의 영역)에 있으나 이미 논리적으로는 결정되어 있어서 현실에서는 이 중 한 계열만 현실화된다. 따라서 발산이 잠재되어 있을 뿐 현실적으로는 발산의 다양성을 배제한다. 발산을 불공가능한 것들 속으로 분배함으로써 결국은 동시 다발적인 또는 공가능한 방식의 발산을 배제한다.

② 헤겔의 길 : 무한대를 통한 무한한 재현 추구 → 변증법적 중심의 고수로 실패함

; 유한은 긍정적 부정(일정한 부정)을 포함한다. 그리고 무한은 유한이 아니므로 부정의 부정(긍정이 아님), 절대적 긍정(완전한 부정)이 된다. 변증법은 애매한 차이 자체를 존재하고 사유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동일한 것의 기능을 통해서만 분명한 모순적 차이로 환원한다.

☞ 양자가 궁극적으로 재현의 영역 속에 머무르고 있었고, 한계들이 단지 겉으로만 극복되었다. 무한한 재현은 계속해서 차이를 동일한 것의 작용을 따라 사유하고 있으며, 세계와 “주장자”를 수렴의 조건과 단일 중심 잡기의 조건에 종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5) 미학(Aesthetik) - 실재적 경험의 조건들 실험하기

미학(Aesthetik) : 그리스어 ‘아이스테시스’(aisthesis, 감성적/감응적 지각)에서 비롯한 것으로 본래 뜻은 ‘미학(美學)’이 아니라 ‘감성학(感性學)’이다. 미학은 한편으로는 가능한 경험의 형식으로서의 감성론이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실재적인 경험에 대한 반성으로서의 예술론을 가리킨다. 이 두 가지 이론과 의미가 서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험의 조건들 그 자체가 곧 실재적인 경험의 조건들이 되어야만 한다. 이때 예술작품은 그 모습 그대로를 위한 것으로, 하나의 ‘실험’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Aesthetik =

㉠ 감성론 : 경험의 학-경험의 형식적 조건, 근거(선험적인 것) = 시간/공간 + 12가지 범주

㉡ 미학/예술론 : 실재적 경험의 조건들-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 : 실재적 경험의 형식 자체를 만드는 실험을 통해 가능하다. 혼돈을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이질적인 계열들의 발산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실재적 경험의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다.

☞ 시물라크르(환영)의 긍정 :

“예술작품의 구조를 이루는 실제적인 경험의 조건들이란 계열들의 발산, 원들의 중심 벗어나기, 그리고 발산과 중심 벗어나기를 포함하는 혼돈의 구성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곧 유사한 것과 동일한 것에서의 모든 종속으로부터 차이를 해방시키는 일. 그리하여 이제는 반대로 유사한 것과 동일한 것을 차이 자체로부터 비롯된 이차적인 힘으로 만드는 일을 말한다. 실제적으로 재현의 세계가 뒤집혀지는 것은 오로지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조건들이 이제 환영 속에서 채워짐을 본다. 왜냐하면 환영은 우리가 이미 정의한 것처럼 자기의 차이를 내화한 기호-신호의 체계,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발산하는 계열들 위에 건설된 기호-신호의 체계, 계열들 사이의 내적인 공명을 세움으로써 하나의 계열에서 다른 하나의 계열로 강제된 운동을 하는 기호-신호의 체계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46~47쪽)

(6) 들뢰즈가 플라톤철학을 뒤집는 방법 :

- ① 들뢰즈는 환영/시물라크르의 가치 재정립하기, 즉 환영의 지위와 가치를 격상시켜서 이데아 중심의 사고와 재현의 철학을 전복시킨다.
- ② 차이 자체를 사물에 내재되어 있다가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현상적으로 발산하는 것으로 볼 경우 재현의 철학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로 수렴되는 다양한 계열들과 관점들의 지속적인 발산은 다름과 차이의 표현이다. 이러한 다양한 다름과 차이의 총체는 우리에게 혼돈으로 다가오지만 그 자체로 생성과 창조의 과정이므로 긍정할 만한 것이다.
- ⑦ 동일자와 유사자를 해체하여 무너뜨린다. 어떤 것이 원본이고 사본인지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 ㉠ 유사 : 두 계열 간의 공명
동일성 : 모든 것들이 되돌아오는 영원회귀이다.

“플라톤주의를 뒤집는다는 것은 도상 또는 사본에 맞서서 환영의 권리, 환상의 권리를 긍정하는 것을 말한다. [니체의] “우상의 황혼”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플라톤주의를 뒤집는다는 것은 본질과 외양, 모델과 이미지라는 플라톤적 구분의 형세에 대하여 단순히 토론을 벌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종류의 이미지에 맞서서 다른 종류의 이미지가 갖는 권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환영은 격화된 사본이 아니다. 그것은 본래적인 것과 그 사본을, 모델과 그 재생산을 부정하는 적극적인 역능이다. 플라톤적 의미에서 본래적인 것이란 동일자, 즉 플라톤이 오로지 정의만이 정의롭고, 용기만이 용감하며, 경건만이 경건하다고 말할 때의 바로 그 동일자를 말한다-따라서 그것은 일차적인 것 속에서 소유하는 자, 즉 근거에 대한 추상적인 규정을 말한다. 그리고 플라톤적인 사본이란 유사자, 즉 동일자를 분유하거나 또는 이차적인 것 속에서 받아들이는 주장자를 말한다. 이처럼 플라톤에게는 본래적인 것의 순수한 동일성에 전형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유사함이 대응하며, 사본의 순수한 유사성에 모방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유사함이 대응한다. 그러나 이제 환영이 본래적인 것과 사본 모두를 허물어뜨린다. 왜냐하면 환영에 내화된 발산하는 두 계열 중에서 그 어떤 계열도 본래적인 것으로서 지정될 수 없으며, 그 어떤 계열도 사본인 것으로서 지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관점에 공통적인 대상이 없는 것 그 이상으로 이제 특권이 부여된 관점이란 없으며, 이차적인 것, 삼차적인 것…… 등의 가능한 계급 또한 없다. 물론 유사성은 존속한다. 하지만 이때의 유

사성이란 환영이 자신의 발산하는 계열들 위에 건설되면서 계열들로 하여금 서로 공명하게 하는 한에서 환영의 외적인 결과로서 생산된 그런 유사성이다. 동일성 또한 존속한다. 하지만 이때의 동일성이란 각각의 계열 속에서 모든 계열을 유지하면서 모든 것을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법칙으로서 생산된 동일성이다. 이처럼 플라톤주의를 뒤집은 속에서는 유사성은 내화된 차이를 통해서 이야기되며, 동일성은 제일의 역능으로서의 다른 것을 통해서 이야기된다. 결국 동일자와 유사자는 오로지 가장됨만을, 즉 환영의 작용을 표현하는 일만을 그들의 본질로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거짓된 주장자의 승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승리는 [아버지-딸-구혼자의 삼자 구도에 근거한] 분유의 질서를 해체해버리는 기묘한 근친상간 속에서 아버지와 구혼자를 가장한다. 하지만 이때의 가장이 하나의 외양이라고 말해질 수 없는 것 그 이상으로 이때의 거짓된 주장자 역시 진리로 가정된 모델과 비교하여 거짓된 것이라고 말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이때의 거짓된 주장자는 니체가 거짓됨이 지니는 가장 높은 역능을 말할 때의 바로 그 역능으로서의 거짓됨에, 허위로서의 거짓됨의 역능 아래에(즉 환영 고유의 역능 아래에) 추락시켜 버리며, 분배의 고정성과 계급의 결정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달리 말해서 환영은 유목적인 분배의 세계 또는 왕위에 오른 아나키의 세계를 세우는 것이다. 환영은 그 자신이 새로운 근거와는 완전히 거리를 둔 채, 모든 근거를 먹여치운다. 환영은 보편적인 와해를, 하지만 적극적이며 즐거운 사건으로서의 보편적인 와해를, “각각의 동굴 뒤에는 그보다 깊은 다른 동굴이 열려 있으며, 각각의 표면 아래에는 그보다 넓고 기묘하며 풍부한 지하의 세계가 있는, 그리고 모든 바탕과 근거 세움 아래에는 그보다 더 깊은 지하자원이 여전히 있는” 그런 탈근거로서의 보편적인 와해를 보장한다.”(47~49쪽)

(7) 시물라크르와 영원회귀의 관계 :

- ① 영원회귀의 드러난 내용 : 혼돈이 조직되는 방식을 재현하는 내용. 근거를 제시하는 신화.
- ② 영원회귀의 숨은/드러나지 않은 내용 : 혼돈을 긍정함. 차이를 드러내는 영원회귀는 그 자체가 선별적인 사유이자 선별적인 존재임.
- ③ 영원회귀의 동일자는 가장된 동일자(차이와 생성에서 파생된 동일성)
- ④ 영원회귀는 존재의 일의성-그 무엇 모두의 유일하고 같은 하나의 의미로 이야기되는 존재
이때 행위의 차원에서 보자면, 동일성을 발생시키는 영원회귀는 칸트의 정언명령처럼 언제 어디서나 계속 반복해서 하겠다는 의지, 자기 행위를 법칙으로 결단하겠다는 것에서 비롯한다. 영원회귀를 의지하겠다면 자기 행동을 정언명령화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탁월한 행동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이처럼 환영들의 존재가 있으며, 바로 이 환영들의 존재가 플라톤주의를 뒤집는 데 가장 비밀스러운 점-니체가 영원회귀라고 규정한 바 있는 것-을 구성한다. [중략] 영원회귀의 드러난 내용은 [중략] 혼돈이 조직되는 방식을 재현하고 있으며, 따라서 유사자 또는 동일자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의 영원회귀는 그가 생성으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복사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곧 패배된 혼돈, 제압되어버린 터무니없는 생성이 되고 만다. 영원회귀가 근거를 세우는 신화로 이야기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형식 아래서이다. [중략]

실제로 영원회귀의 비밀은 혼돈에 대립되는 그 어떤 질서도, 혼돈을 종속시키는 그 어떤 질서도 표현하지 않는다. 그것은 혼돈과 다른 것이 아니며 혼돈을 긍정하는 (또는 혼돈을 긍정의 대상으로 만드는) 역능과 다른 것이 아니다. [중략] 영원회귀와 환영 사이에는 이처럼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을 정도의 깊은 관계가 존재한다. 이리하여 이제 되돌아오는 것은 발산하는 한에서의 발산하는 계열들이다. 즉 되돌아오는 것은 각각의 계열이 다른 계열과의 차이를 함축하는 한에서의, 아울러 모든 계열이 혼돈 속에서 접혀져 있는 한에서의 발산하는 계열들인 것이다. [중략] 영원회귀는 하부-재현적이거나 또는 상부-재현적인 세계의 법칙(재현을 벗어나 있지만 바로 그 재현의 세계를 가능케 하는 법칙)이다. 영원회귀는 모든 것을 되돌아오도록 하지는 않는다. [중략] 만약 영원회귀가 동일자요 유사자라고 한다면, [중략] 동일자와 유사자가 오로지 차이 또는 다른 것으로부터 이야기되는 한에서만 그러하다. 말하자면 가장된 동일자와 유사자인 한에서만 그러한 것이다. 아울러 영원회귀는 그 자체가 선별적인 사유이자 선별적인 존재이고, 따라서 영원회귀 또한 [틀라톤 이데아론과 마찬가지로] 차이를 드러낸다. 하지만 영원회귀가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은 플라톤의 그것과는 상반되는 방식이다. 왜냐하면 영원회귀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작용케 하는 것은 거짓된 주장자의 역능 아래에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영원회귀는 일의적인 존재 이외의 다른 본질을 갖지 않는다. 말하자면 영원회귀는 곧 존재의 일의성인 것이다. 존재는 그가 무엇으로부터 이야기된다고 할 때 바로 그 무엇 모두의 유일하고 같은 하나의 의미로 이야기된다-하지만 그로부터 존재가 이야기되는 무언은 그 자체가 환영이자 혼돈의 우주이며, 따라서 그것은 차이를 낳고, 차이를 내화하며, 차이를 발산시킨다(“가장simulation”으로서의, 디오니소스라는 환상적 기계로서의 권력의지의 세계).” (49~52쪽)

(8) 시물라크르와 현대성의 관계 : 시물라크르의 시대

현대성/근대성(modernity)과 관련하여 철학이 해야 할 일은 니체가 “반시대적인 것”이라고 지칭한 것을 미래를 위해 현대성으로부터 찾아서 드러내는 것, 현대성이 억압한 시물라크르를 인위적으로 틀에 박힌 현대성 속에서 찾아내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때의 ‘반시대적인 것’이란 ‘현대성에 잠재되어 있지만 현대성에 맞서는 것으로 되돌려져야만 하는 것(시물라크르/환영)’이다.

“이렇게 해서 반시대적인 것은 가장 먼 과거와 관련해서는 플라톤주의를 뒤집음 속에서 성립되고, 현재와 관련해서는 [인위적으로 틀에 박힌 것에 맞서는] 이러한 비판적인 현대성의 지점으로 고려된 환영 속에서 성립되며, 미래와 관련해서는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서의 영원회귀 속에서 성립된다. 인위적으로 틀에 박힌 것과 환영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들은 서로 대립한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틀에 박힌 것은 언제나 사본의 사본이며, 따라서 그것은 환영 속에서 자기의 본성을 바꾸고 스스로 뒤집어지기에 이르기까지 밀어붙여져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이때 이 둘의 대립은 마치 파괴의 두 양태의 대립과도 같다. 왜냐하면 환영은 현대적인 삶 속에서의 파괴자이지만, 우리가 행한 현대적인 파괴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통해 작용하는 파괴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니체가 말하는 두 가지 허무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이다. 이처럼 부정을 하는 혼돈을 그저 참아내거나 성립시키는 것과 혼돈 자체를 긍정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존재한다. 랭보에 관한 경탄할 만한 저서에서 밀러는 “그는 필연적인 파괴들이다”라고 해설한다. [중략] “그는 모든 창

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그런 파괴[환영에 의한 파괴, 강자의 허무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그런데 지배자들은 최소한의 용서도 없이, 또한 분명히 창조적인 사유의 기미도 없이 때려 부수고 있어[인위적으로 틀에 박힌 것에 의한 파괴, 약자의 허무주의]. 랭보가 바랐던 건 문학에서처럼 삶 속에서 낡은 형식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었는데, 지배자들이 원하는 건 현상 유지와 그 현상 유지가 야기하는 학살과 파괴일 뿐…… [중략] 꿈꾸는 자는, 저속한 사람들의 눈에는 현실로부터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칭 정치인보다는 천배 이상으로 능력 있고 창조적이라는 걸 나는 믿어.”(53~54쪽)



현대성/근대성 = ㉠드러난 것 + ㉡맞서는 이질적인 계열들의 잠재성
인위적인 틀에 박힌 것 반시대적인 것 =(숨은 질서의 논리/혼돈)
현상유지를 위한 파괴 전복적인 것, 저항하는 것, 미래적인 것
법정립적 폭력/현존 질서 신적인 폭력-법의 파괴와 설립

3. 우리네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 인생을 사는 방법의 차이

㉠ 이데아를 따라 살기 :

이데아답게 살기, 인간답게 살기, 대타자/사회질서가 요구하고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계적인 인과질서에 따라 바깥의 무엇을 재현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사는 방식이다. 재현의 존재.

㉡ 시뮬라크르처럼 살아가기 :

내 욕망대로 살기, 나답게 살기. 비존재의 존재로 살아가기. 나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에 따라 살아가기. 주어진 인과질서를 깨뜨리며 이데아를 반복하는 재현의 인생을 부정하며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나가는 선택을 하면서 사는 방식이다. 이는 내 안의 잠재된 이질성이 어떤 계기로 폭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벤야민 어법을 빌리자면 ‘잠재된 과거의 실현’이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동일성을 지닌 이데아, 즉 본질적 특성으로 보이는 것의 반복적인 출현은 삶과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사물의 이데아, 사태의 이데아, 사건의 이데아, 곧 세계를 구성하는 동일한 것의 반복을 시뮬라크르의 차이들 속에서 사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차이들과 생성의 흐름에 함몰되면 고유성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없어서 주체성은 해체되어 버릴 것이고, 다른 한편 안정적인 동일성으로서의 이데아만을 고집하는 것은 변화와 생성의 흐름 속에서 단절되어 고립과 부적응을 자초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선택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는 선택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원하는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선택 이데올로기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어째서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불이익과 피해를 가져다주는 선택을 하게 되는가. 분명 우리는 벗어나고 싶은 끔찍한 고통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모순에 대해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성찰하며 새로운 사유를 펼치는 슬로베니아 학파의 일원인 레나타 살레츠키가 답한다. 주어진 선택의 틀, 강요된 선택의

구조를 성찰해야 한다. 주어진 선택지 내에서 기존의 사회구조나 심리구조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택이란 관념을 강요하는 오늘날의 자본주의사회는 계급차이와 인종적·성적 불평등을 은폐한다. 1987년 마거릿 대처는 유명한 선언을 남겼다. ‘사회 같은 것은 없다. 개인으로서의 남녀, 그리고 가족이 있을 따름이다.’ 이런 관점은 이후 사회의 전 층위에 스며들었다. 사회 부정에 대한 투쟁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는 가난에 대한 수치와 경제적 성공의 사다리에서 더 높이 올라가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자리잡았다. 또한 충분히 훌륭하지 못하다는 데 대한 불안감은, 더 오래 일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도 더 신경 쓰도록 만들면서 사람들을 길들여왔다. 선택은 사회적 차원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이 더는 개인의 특혜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사람들의 선택권은 실제로는 사회적 분할에 따라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고, 노조 조직화, 보건과 안전, 환경과 같은 안전들은 점점 더 우리의 선택지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선택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눈을 가려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 바로 이것이 선택이데올로기가 지금껏 승승장구해온 원인이다. 그 결과 사회적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권력관계들을 변화시킬 선택의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당연히 선택 이데올로기는 지금 이 순간을 살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부추기는 뉴에이지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만병통치약으로 제시되는 선택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투쟁을 위해, 선택이란 관념을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복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 실례로 런던 젊은이들의 무가지들에 대항한 싸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는 무가지들은 선정적인 폭로 기사와 유명인의 취향과 업적을 다룬 기사들로 도배되어 있다. 이런 무가지에 반대하는 한 무리는 ‘무엇을 읽을지 선택하십시오’라는 구호를 내걸고 사람들에게 헌책을 나눠 주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무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이 오염되는 일이 사라지기를 바랐다.”

-레나타 살레츨, 『선택이라는 이데올로기』(박광호 옮김, 후마니타스, 2014년, 210~212쪽)에서